‘안동권씨성화보’를 분석한 논문 또 나와

조선시대사학회에서 원광대 이남희 교수 발표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로서 세칭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공식 명칭 ‘안동권씨족보安東權氏族譜 성화병신보成化丙申譜’를 학계에서 분석연구하여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많아서 다 찾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난 6월 원광대학교 이남희李南姬 교수가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 본 조선 전기 여성의 재가再嫁 문제’라는 상당히 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10포인트 활자 A4용지 16면에 차는 길이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조선시대사학회 제106회 월례발표회의 제2발표로 6월 4일 서울역 앞 대우재단빌딩 7층 회의실에서 한양대 이석규李碩圭 교수 사회, 숙명여대 한희숙韓嬉淑 교수 토론으로 발표되었다.

논문의 내용은,

Ⅰ. 머리말
Ⅱ. 재가 기재 양식
1. 혼인과 여부女夫
2. 재가와 후부後夫
Ⅲ. 재가 분포와 의미
1. 파별 · 세대별 분포
2. 재가 기록과 사회적 의미
Ⅳ. 맺음말

로 되어 있다.

그 머리말에서 필자는 안동권씨성화보의 가치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두를 열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명 헌종憲宗 성화成化 12년, 조선 성종成宗 7년)에 간행된 안동권씨성화보이다. 성화보는 안동권씨의 내외손을 다 적은 대동보大同譜이자 동시에 만성보萬姓譜 형태를 띠고 있다. 족보는 한 성씨의 혈연관계인 계보系譜와 내력에 관한 것을 적은 가계기록으로 혈통과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였다. 사문서이지만 동시에 공적인 문서의 구실도 하였다. 그래서 족보는 한 성씨의 가족사 차원을 넘어서 조선시대 사회사와 신분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족보는 개인이나 문중에서 편찬하기 때문에 미화되거나 조작의 가능성 또한 지닐 수 있다는 신빙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은 특히 조선 후기에 간행된 기록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족보를 역사 자료로 이용함에는 엄밀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 초부터 조선 전기에 관한 기록인 성화보는 ‘정확성과 탁월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성화보를 활용해서 그 시대의 내외손의 수록 범위, 남녀 기재 양식, 양자와 종족宗族 의식, 외손봉사外孫奉祀 등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가 진척되어 왔으며, 성화보에 기재된 직위·관직을 토대로 한 제도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연구와 더불어 성화보의 체제, 구성 내용, 자료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밝혀졌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서 이교수는 이 연구를 하게 된 취지를 ‘성화보를 통해서 조선시대 사회사를 연구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서, 이 글에서는 성화보에 수록된 부녀자의 재가再嫁 기록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양반 부녀의 재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만이 부각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재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화보는 그 기록 사실이 매우 엄격하게 사실대로이고 거짓이 전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거니와, 그 용어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생소하게 장인을 ‘처부妻父’로, 사위를 ‘여부女夫’ 또는 ‘여자부女子夫’, 재가한 남편을 ‘후부後夫’라고 칭하는가 하면 출가녀의 혼인 형태에 대해서도 초실初室 · 중실仲室 · 후실後室 · 삼실三室 · 부실副室 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필자는 현재 원광대의 교학대학 한국문화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전북도문화재전문위원 · 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 조선시대사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조선사회 이렇게 본다 · 조선시대 과거와 벼슬 · 학문의 제국주의’ 등 10여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權奇奭 제공>

3면에서 계속

의 아들이고 익겸은 고 참판 김반金槃의 아들로서 태학太學(성균관)에서 학업을 닦으며 모두 이름이 있었다. 김상용이 남루南樓에 있을 때 두 사람도 같이 누상에 있다가 불길이 치솟아도 피하지 않고 죽었는데 뒤에 헌직憲職에 추증되었다. 그런데 강도江都의 사자士子들이 윤전尹 (필선弼善으로서 강화에서 전사, 이조판서 추증, 시호 충헌忠憲)의 죽음은 분명치 못한 점이 있고 순장 등은 어머니가 있는데도 먼저 죽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충렬사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신筵臣 유계兪棨의 진언에 따라 이렇게 명했다’고 나온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현종즉위년, 1659년 7월 18일조에 공의 강화 순절 사실이 나오고, 숙종 11년, 1685년 4월 9일자에 유생들이 의논으로 공의 순절 사실에 대해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평론한 윤선거尹宣擧(강화에서 공과 같이 있다가 그 부인은 자결했으나 그 어머니를 생각해 백성으로 변복하고 강을 건너 피함)의 아들 윤증尹拯을 탄핵하는 기사가 실려 있고 동 9월 30일자에도 같은 일로 논란이 일어나는 기사가 실렸다.

숙종13년, 1687년 2월 4일자 실록에 송시열宋時烈이 상소하여 홍익한洪翼漢 등 ‘삼학사三學士’와 권순장 등 ‘삼유생三儒生’을 같은 반열로 논하여 물의가 일어나는 기사가 나오고 이 일은 동 3월 17일자와 4월 14일자에도 거론되어 나오고 있다. 숙종보충실록肅宗補充實錄 숙종 11년, 1685년 2월 4일자와 9월 30일자에도 송시열의 이 의논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숙종 13년, 1687년 3월 19일자와 숙종 43년, 1717년 10월 5일자에도 같은 의논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공의 묘소는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방목동榜目洞에 있었는데 1879년에 사태가 나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진평산榛平山에 손좌巽坐로 이장하였다. 그 신도비는 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비문을 짓고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글씨를 썼으며 부제학 신익상申翼相이 전서篆書하였다. 그 비문의 대략 풀이는 다음과 같다.

숭정崇禎(명 의종) 병자丙子(1636) 겨울에 청인淸人이 대거 동침東侵하여 이듬해 정월에는 강도江都가 함락되니 나의 벗 권공權公 효원孝元이 난중에 돌아갔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나 그의 유자遺子 시경是經이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 울면서 말하였다. ‘선인先人을 매장한 지 2기紀(1기는 10~12년)가 넘었는데 유당幽堂의 명銘이 아직도 없으니 그 지절志節을 표백할 도리가 없을 것이 크게 두렵습니다. 선인을 아는 옛벗으로는 공과 같은 분이 없기에 감히 청하오니 오로지 공께서 실지로 지어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문사文辭가 없고 또 감히 새겨 쓸 수 없는 바인지라 누차 사양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더욱 힘써 청하니 차마 또 어떻게 사양할 것인가. ……중략……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수穎秀하기가 남보다 뛰어났는데 책을 읽고 글을 깨우치면서 재예가 날로 나아갔다. 일찍이 친구 청파靑坡를 찾아갔다가 밤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여구儷句를 지어 보냈으니 이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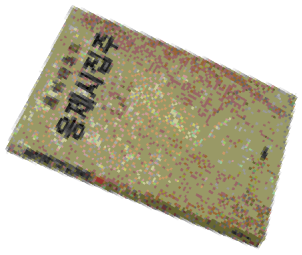
도절행인道絶行人 : 길에 행인이 끊어지니
유천적적流泉寂寂 : 샘물 소리 적적히 흐르고
야유만초野有蔓草 : 들에 널린 풀덩굴에는
영로양양零露지지 : 이슬 많이 맺혀 흐드러지누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모두 탄상歎賞하여 진경眞境을 그렸다 생각하였다. 18세에 진사에 입격하니 명성이 더욱 퍼졌는데 을축乙丑(1625)에 판서공이 해서海西(황해도)를 다스리러 나갔다가 한때 질환을 얻었는데 일이 많아 문부文簿가 듭쌓이므로 대의大義를 구술해 주고 공으로 하여금 대신 재처載處케 했다. 공이 이를 영략領略하여 해결하고 수응酬應하는 것이 일관된 도리에 곡진히 맞으니 모두 그 기이한 재주를 칭예하였다. 기사己巳(1629)에는 판서공이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있다가 질환을 얻어 면직하고 돌아오니 공이 밤낮으로 시병侍病하면서 의대衣帶를 풀지 않은 것이 두 달이고 환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輸血하였으며 초종初終을 당해서는 애통하여 초췌해지는 것이 예제에 지나쳤다. 이후 의금부도사都事에 제수되고 건원릉健元陵 참봉과 빙고별제氷庫別提에 보임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고 일관되이 학업을 닦으면서 누차 과거를 보아 급제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 굴강屈强함을 탄식하였다. 병자년丙子年(1636) 병화兵火를 피할 때는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강도로 들어갔는데 병변兵變이 창졸간에 박두한지라 상께서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시고 재상 윤방尹昉과 김공金公 상용相容 및 검찰사 김경징, 이민구李敏求 등이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먼저 강도로 들어갔다. 남한산성은 길이 끊기고 여러 겹으로 에워싸였으며 적은 또 작은 배를 만들어 강도를 범하고자 도모하는지라 섬 안이 모두 두려워하여 흉흉한데 검찰사와 유수留守 장신張紳 등은 앉아서 그곳이 천혜의 참루塹壘인 것만 믿고 놀며 즐기는 데에 전일하여 수비를 꾀하지 않았다. 공과 뜻을 같이하는 지사들은 의병義兵과 단결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분사分司에 글을 올리니 말뜻이 격절激切하였는데 거기에 ‘섶에 눕고 쓸개를 씹는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하나니 술잔을 나누는 것은 그 때가 아니다’ 하는 구절이 있었다. 민구敏求 등이 이를 보고 미워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와서도 또 이 무리를 만나니 불행한 일이다’ 하였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 · 지명 · 색뮐

응제시집주

應制詩集註



權 近 原作
權 擥 集註
權光旭 譯註

신국판352면 • 값15,000원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걸쳐연재한노작의역주문을모아다시교열 · 수정하고, 완전히띄어쓰기를하여새롭게조판한원문과인명 · 지명및사물색인을추가하여한권의책으로만들었습니다.

해돋이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917호
전화(02)734-3085 전송(02)738-8935